

사랑의교회의 농어촌 선교 정책

심 현 섭 (목사, 사랑의교회 국내선교부)

1. 들어가는 말

지금 몇몇 선진적인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에서는 과거 20여 년 동안 시행해온 농촌 선교의 방법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데 정작 그 방법과 내용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의식있는 농촌 목회자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는 도시교회는 드물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도시교회의 농촌교회 문제의 심각함에 대한 인식의 결핍 등, 도시교회의 의식수준과 실천역량의 부족에 있다고 하겠다. 또 그 대안이 이러한 도시교회의 실정과 처지를 감안한 단계적 정책이라기보다는 결론적인 대안 이기에 도시교회로서도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도 농교회의 바른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양쪽 입장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과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도시교회의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2. 농어촌 선교의 문제점

- 1) 농어촌 선교정책의 부재
- 2) 농어촌 목회자의 자질
- 3) 지역사회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결여
- 4) 농업(산업)과 선교에 대한 통합적 이해 결여
- 5) 사회과학적인 접근의 결여

3. 농촌사회와 교회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1) 이농현상

농업의 비중하락은 결과적으로 이농현상에서 비롯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점차 감소한 농업의 비중은 1995년 12월 1일 현재 전국의 농가 수는 1백49만9천 호, 농가인구는 4백83만 8천명으로 90년보다 각각 15.2, 27.4%가 줄었다.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경향신문, 96. 7. 4) 농업생산이 국민총생산의 9.1%(90년 현재)로써 사양길로 들어서고 있다. 교회도 평균 교인 수 44명, 30명 미만의 교회가 농촌교회의 59%로써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읍, 면교회의 숫자까지 합해 그렇지 실제로 농촌교회에는 10-20명의 교회가 대부분이다.

21세기를 들어서면서 농촌인구의 감소는 더욱 급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농정방향이나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2002년이면 95년 말 현재 2백59만 명인 농어업종사자가 73만 명으로 70%가량 줄며 이들이 기업농 및 전문농업 경영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향, 96. 6. 27) 현재 50호의 마을이 약 1/3 수준인 15호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물론 여기에 변수는 있다. 92년이래 꾸준히 귀농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92년 362가구, 93년 612, 94년 658, 95년 920, 96.4까지 327, 30대 40%, 농사를 다시 짓고 싶어서 57.3% 경향, 96. 10. 1) 그러나 이농현상의 큰 흐름을 꺾어놓는 정도는 아

나라라 본다.

2) 노령화

90년 현재 농림어업 취업인구의 56.3%가 50세 이상의 노령층이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이다. 농촌교회에 교회당 교인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려니와 그 구성분포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농촌교회는 30명 이하인 교회가 93.6%이고 교회학교 아동수가 30명 이하인 교회는 77.2%나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는 농촌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3) 전업농의 증가와 고소득 농가의 등장

21세기에 들어서면 소수정예의 엘리트 농업이 자리잡아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농가평균소득은 6천4백60만원으로 95년의 1천7백39만원에 비해 3.7배 이상 늘어나 농어민이 도시근로자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 말을 순수히 믿을 수는 없지만 미래의 농촌사회가 현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은 생활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추측은 농대생들의 약 34%가(농가출신 대학생의 경우 41%) 영농에 종사하겠다고 나타난 의식조사 결과와 현재까지의 자급적 영농방법이 시장지향적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되고 있는 농업형태구조의 변화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4) 외부사회와의 공간적, 경제적 거리의 접근도(接近度) 향상

농어촌의 도로화율이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87년 현재 도시의 50%수준, 이후 그 간격은 더욱 좁혀졌다고 본다)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한국 농촌의 도로화율(전국 도로화율 약 80%)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해도 될 것

이다. 경험적으로도 길이 불편한 곳은 극히 드물다.

이와같은 도로의 확장과 함께 통신, 전화, TV, 라디오 등 정보, 통신 매체의 대량보급에 따라 농촌주민들과 외부사회와의 공간적, 경제적 거리가 단축되고 접근도가 향상되면서 농민들의 생활활동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 현상을 교회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때, 한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이후 농촌 교회의 구조적 변화를 논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5) 농업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

(1) 과연 인류문명의 발달에 따라 누적되어 온 자연 환경 파괴는 장래의 인류가 참고 견딜 만한 수준인가? 도시문명만으로 인류는 존속할 수 있는가?

(2) 증산만을 위한 자연 파괴적인 농업생산방식, 즉 다비다농약적(多肥 多農藥的) 농업 생산방식은 앞으로 더 계속되어도 괜찮은 상태인가?

(3) 식량의 자급자족 문제. 식량 최대 수출국이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의 국가들이 공업진흥정책으로 말미암아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과 세계 식량생산의 감소현상을 볼 때 앞으로 식량의 부족상태가 오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리라 여겨진다.

6) 도시 환경문제와 실버그룹의 급증

위의 현상은 농업인구는 줄되 지역에 따라서는(도시에 근접한 지역) 거주인구는 점증할 것을 예상케 한다. 최근의 한 의식조사 결과 국민의 70%이상이 농촌에서 살고 싶다고 한 점과 위에서 살펴본 농촌 유-턴 현상, 그리고 도시의 환경파괴문제에 대한 심각성 등을 감안한다면 농촌에 거주할 인구(농업종

사인구는 아닐찌라도)의 점진적 증가는 가능한 예측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환경문제와 도시사회의 변화는 농촌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리라 본다. 지금까지 산업적 가치로만 평가되었던 농촌사회는 산업적 가치와 함께 환경보호기능 및 교육의 장, 또는 복지기능의 역할, 도시 문화를 보완하는 문화보완적 기능, 노후의 생활 터전 기능 등의 사회문화적인 부가가치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

4. 농촌선교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

1) 분명한 정책과 설립목적이 없는 교회의 설립은 지양하여야 한다.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의 16%인데 비해 농촌교회는 전체교회의 46%이다. 물론 아직 무교회마을은 많이 있다. 그러나 무신자 마을은 80년 현재 18%였으니 지금은 보다 나은 상황일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50호 정도의 마을에 교회가 없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기독교 대항 성결교의 경우 교역자없는 농어촌교회는 약 6.1%로 조사되었는데 전체적인 교회의 형편도 이와 비슷하리라 본다. 여기에 인구의 급감을 감안할 때 뚜렷한 목적없이 농촌에 교회 하나를 더 세우는 일은 당분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회 설립 지양정책이 복음전도의 포기는 절대 아니다. 여전히 농촌의 복음화율은 전국의 29%, 도시 33%에 비해 지극히 저조한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어촌 선교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새로와질 필요가 있다. 교회중심적인 사고에서 지역선교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할 때가 온 것이다. 교회가 필요한 지역은 지역 조사, 장래 가능성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정책을 세워 농촌선교사로 훈련된 자를 파송하여 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책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교회설립보다는 현재 있는 교회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평신도를 활용한 선교방법 개발 등, 새로운 복음전도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농어촌 복음화에 더욱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2) 전통적 교회개념에서 복합적 교회 개념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 교회와 구원
- 교회와 환경 - 환경교육학교, 생명농법의 보급 등
- 교회와 복지 -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 교회와 지역사회 - 마을 공동체운동, 농업정책(농산물 유통-직거래)
-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바른 연대
- 교회와 통일

3) 농촌교회의 통폐합이 이루어진다.

요즘 농촌에도 교회없는 곳은 드물다. 50호 정도의 마을이면 거의 어김없이 교회가 있다. 이후 인구의 격감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50호는 약 15호 정도로 준다는 얘긴데 과연 그 가운데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현재 도로포장율이 약 80%이고 자동차 보급율이 더욱 늘어나면서 교통과 통신 등이 발달되면 지역간의 격차가 좁혀지게 된다. 그러면 작은 마을의 교회는 주변의 상대적으로 큰 교회와 합해질 것이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예측하는 것이다. 정부의 농어촌정책도 상당한 규모의 집단화를 이룬다는 쪽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런 정책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통합을 가져올 개연성을 크게 하고 있다.

4) 전문적인 협력목회를 하여야 한다.

앞으로 농어촌 목회가 위에서 말한 복합적인 개념의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도수는

적더라도 담당하는 지역이 크므로 심방 등 전통적 교회개념에 충실한 목회자와 지역사회연구 등 위의 복합적 교회 개념에 충실한 목회자 등의 전문목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통폐합을 대비하는 일이 된다.

5)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체로 존재하여야 한다.

지역자치개념이 정치, 사회, 문화적인 핵심개념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교회 또한 더 이상 지역과 괴리된 교회가 아닌, 지역을 위한 교회, 지역주민에 의한 교회로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에서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특히 농어촌사회가 문화적으로 향상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회(서비스하는 교회)로 존재하여야만 한다. 교회는 주택, 생산유통, 문화시설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에 앞장서 농어촌사회를 살만한 '삶의 터'로 만드는 일에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각별히 현 시점에서 농어촌교회는 정부의 농촌진흥지역개발과 같은 사업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6) 도시교회는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농촌의 교육적 활용가치 - 환경, 통일

도시교회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의
장으로써의 가치 - 도농연대

5. 도시교회의 역할

농어촌 사회와 교회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도농교회의 연대방법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모델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1)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향)
1	교회중심적 지원	지역중심적 지원 (농업사회를 이해하는 선교)
2	전시효과적 단순지원	지속,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3	시혜적 일방적 지원	쌍방간의 나눔의 지원
4	지역 산발적 지원	지역 집중적 지원을 병행(모델제시)

2) 지역집중적 연대의 방법

- 연대방법의 두 가지 철학
 - ┌ 도농교회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한다
 - └ 선교 패러다임의 사고 전환 - 교회중심적 선교에서 지역중심적 선교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도, 농 교회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교회 중심적 선교에서 지역 중심적 선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철학에 근거한 것이다. 사랑의 교회 국내선교부는 위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도, 농 교회의 연대정책을 수립하고 그 모델을 제시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피폐한 한국의 농어촌교회를 살리는 일임과 동시에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선교의 실제적인 준비가 될 것이다.